광양항 대형선박에 육상 전기 공급…매연·소음 크게 줄었다

디젤 발전기 대신 AMP 사용
항만공사, 인센티브 제공 등
AMP 이용률 높이기 고심

지난 1일 광양항 자동차부두에 입항한 선박이 고압용 육상전원공급설비를 통해 필요한 전원을 공급 받고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제공〉

광양항에 정박한 대형 선박들이 자체 디젤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고 육상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매연 및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처음으로 고압용 육상전원공급설비(Alternative Maritime Power·AMP)를 사용해 자동차 운반선에 전력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AMP는 대형선박이 항내 정박시 필요한 전력을 기존 디젤 발전기가 아닌 육상전력으로 대체해 매연,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오염 물질을 저감시킬 수 있는 설비다.

이번에 사용한 전력은 총 5.3MWh로 선박의 발전기 가동 대비 1.6t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공사측은 예상했다.

고압용 육상전원공급설비는 2019년 10월부터 가동중이지만, 항만에 접안한 대형 선박 가운데 자동차 운반선에 공급되면서 지난해와 올해 몇 차례 입항한 자동차 운반선에 제공됐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육상전원공급설비 사용이 가능한 선박의 입항이 뜸해 항만공사도 설비 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공사는 AMP 설비를 사용한 선박에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디젤 발전기보다 육상 전력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김민구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시설부장은 "부두운영사와 선사를 대상으로 AMP 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며 "코로나19와 항차 감소 등 애로사항을 보완할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고압용 설비 외에 저압용 AMP를 올해 2개소 추가 설치해 선박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구례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추진

국비 등 34억 투입 이달부터

구례군은 3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구례군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등 34억원의 사업비를 최종 확보, 이번 달부터 설치 공사에 들어간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 사업은 주택, 상가, 공공기관 등에 대해 태양광, 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융합해 보급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와 지역주민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 에너지 복지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군은 지난 1월 한국에너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컨소시엄 업체를 통해 사업 대상지인 구례읍, 마산면 373개소를 현장 방문하고 설치 장소 등을 확정했다. 사업은 올해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은 20% 정도의 자부담으로 저렴하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지역주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2022년 광의면과 산동면을 대상으로 총 3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곡성천 '견생조각전' 곡성천에 대형조각들을 전시하는 '견생조각전(見生彫刻展)'이 열리고 있다. 견생조각전은 '보면 생명이 생긴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크라운 해태 아트밸리 소속 작가들과 광주 전남 작가들이 대형 야외 조각 작품 25점을 선보인다. 〈곡성군 제공〉

맛! 납시다

고흥산 명품 햇다시마 본격 출하

고흥군은 지난 1일 금산면 오천 다시마 위판장 개장식 및 초매식을 시작으로 고흥산 명품 햇다시마의 채취와 판매가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사진〉

고흥 지역의 다시마 채취와 판매는 6월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펼쳐진다.

다시마는 육상에서 햇빛과 해풍으로 자연건조를 해 타 지역에 비해 빛깔과 품질이 좋아 주로 단백하고 감칠맛을 내는 국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간식용 가공제품이 개발되며 가족 웰빙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비만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전해진다. 특히 다시마 표면의 끈적이는 점성을 가진 수용성 식이섬유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해 대장암이나 고지혈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고흥군에서는 지난해 442t의 건다시마를 위판해 21억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올해는 지난해 수준과 비슷한 20억원(약 400t)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고흥=주각중 기자 gjju@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동천변 정원축 이름 '동천정원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핵심 공간이 될 동천변 정원축의 명칭으로 '동천정원길'이 최종 선정됐다.

순천시에 따르면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4월 동천변 구간의 명칭 공모를 통해 324건을 접수하고 전문가 심사와 선호도 조사를 거쳐 총 6건을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동천정원길'〈조감도〉은 강청수변공원에서 순천만습지까지 약 14.5㎞ 구간의 동천변 거리를 지칭하며, 박람회 행사장과 주변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결하는 정원축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조직위는 앞으로 동천정원길을 정식 명칭으로 공표할 예정이며 대한민국 대표 정원길로 조성할 계획이다.

우수상에는 '정원마중길', 장려상에는 '순천정원길', '순리대로', '국가정원길', '물빛정원길'이 입상했다.

조직위는 수상작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최우수 당선작은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각 10만원을 전달한다.

장홍상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 사무국장은 "앞으로 동천정원길은 흩어진 박람회장을 연결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광양매실, 이달 TV 홈쇼핑 판촉 활동

광양시가 본격적인 매실 출하기를 맞아 명품 광양매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TV 홈쇼핑 판촉에 나섰다.

광양시는 NS홈쇼핑 방송을 시작으로 6월말까지 총 9회에 걸쳐 공영홈쇼핑, NS홈쇼핑을 통해 최고의 청매실, 남고매실, 황매실, 당절임 매실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홈쇼핑 방송 판매는 광양시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홈쇼핑 수수료를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축제, 직거래장터, 박람회 등이 취소된 지역 내 매실농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매실은 지리적표시제 제36호로 등록되어 6년 연속 '소비자 신뢰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으며, 전국 생산량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등 명품 매실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매실은 무기질, 비타민, 유기산, 구연산 등의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해 피로 해소, 해독 작용, 소화 촉진 등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코로나19

함께하면 이겨낼수 있습니다

이제는 서울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환자의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병원
보건복지부·국가금연지원센터 지정
광주금연지원센터
대상 : 20년이상 흡연자(금연캠프), 여성, 사업장 장애인,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동구 필문대로 365 전화 222-9030(금연성공)

광주광역시 광산구의사회
GWANGSAN-GU MEDICAL ASSOCIATION

광주병원
친절한미소 고객을 위한 실천
진료과목
광주광역시 북구 면앙로 139번길51(두암동)
(동광주IC 삼성홈플러스 맞은편)
대표전화. 260-7000 FAX. 260-7111

공공의료·복지를 선도하는 최고의 파트너
보훈공단 광주보훈병원
병원장 김 재 휴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대표전화 062.602-6114
응 급 실 062.602-6119

www.gcdh.or.kr
의료법인 우암의료재단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광 주 시 립 정 신 병 원
우암의료재단에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www.ct119.co.kr
믿음을 주는 참 좋은 병원
광주씨티병원
씨티재활의학과요양병원
광주씨티병원 062.460-7000
응 급 실 062.460-7119
씨티재활의학과 요양병원 062.604-5000